이상돈의 '바른 소리'

새정치민주연합, 어디로 가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심각한 내홍에 휩싸여 있다. 4·29 재보선 참패에 따른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을 둘러싼 논쟁이 이제는 계파 갈등으로 비화되어서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해서 당 혁신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분당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묘책이 있을 지 알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와 문재인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도도 20%대로 주저앉았고, 이대로 가다간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은 해보나 마나 하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 계기는 물론 4·29 재보선이다. 하지만 4·29 재보선은 처음부터 야권에 불리한 선거였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재보선이라서 2012년 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한 새정치민주연합도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관악을 지역구만은 당선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야권 후보 난립을 막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재보선은 각 지역구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 상징성 있는 후보를 발굴해서 출전시켜야 했던 것이다. 비노 및 호남 의원들은 이런 점을 들어서 문 대표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번 전당대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미 두 쪽으로 갈라져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일단 문재인 의원이 대표로 취임한 후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문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했는데, 이는 여권의 자충수에 힘입은 측면이 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았고, 얼마 후에 김무성 대표의 수첩 파동으로 '십상시' 존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들을 향해 "직접 보고하고 싶으세요?"라고 묻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고, 수첩 파동으로 풍문으로만 들어오던 '십상시'의 존재가 확인된 그 시점에 문재인 의원이 대표로 취임한 것이다.

문 대표는 지지도 상승이 여권에 대한 실망에 힘입은 것임을 알고 반사이익으로 생긴 지지도를 공고히 했어야만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광주 서을에서 천정배 의원의 당선을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이를 계기로 '호남정치의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호남신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허망한 일이다.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살펴야 할 최대의 기반은 호남도 아니고 친노도 아닌 수도권 유권자들이다.

'선거의 여왕'이란 박근혜 대통령이 전력투구했던 2012년 총선에서도 수도권 유권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새누리당은 강남3구와 성남 분당 같은 부자 동네, 그리고 노령 인구가 많은 도농 복합 지역구에서 주로 승리했다.

반면 야당은 우리 사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간 계층이 두터운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수도권 유권자들은 정당 생활을 오래 한, 그렇고 그런 후보 보다는 상큼한 새 인물을 지지한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떨어뜨리고 당선된 신경민 의원, 관록있는 다선 의원과 싸워 당선된 이언주 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2년 4·11 총선 때 야당이 신경민, 이언주 같은 후보를 보다 많이 발굴해서 투입하고 정통민주당의 창당을 막았더라면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비노 및 호남 의원들은 4·11 총선도 결국 친노가 주로 공천을 해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유권자들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호남 표를 얻기 위해 전에 없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오늘날 문 대표에 대해 섭섭함을 갖고 있는 호남 민심의 배후에는 지난 대선 때의 보내 준 높은 지지와 그 후의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호남에서 '호남정치'니 '호남신당'이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은 패착이라고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 서서 세대와 지역, 그리고 이념과 정책에 있어서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정권을 창출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남의 인구는 호남에 비해 두 배는 되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결국 수도권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수도권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싸늘하지만 친노와 호남에 묶여 있는 야당에 대해서도 가슴을 열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중앙대 명예교수〉

社 說

또 고질병 도진 지방의원들 관광성 외유

광주와 전남지역 기초의원들이 잇따라 관광성 해외연수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5월 의회가 회기를 마치자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외유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데도 너도 나도 외유성 연수를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광주 서구의회 의원 6명은 지난 26일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개 국 연수를 떠났다. 하지만 연수 목적인 노인복지센터나 어린이집 방문 등은 몇 군데에 불과하고 덴마크 인어공주상, 노르웨이 요스테달빙하 등 관광지 일색이라고 한다. 광산구의원 10명도 26일부터 유럽 연수에 나섰으나 파리 에펠탑, 센강 유람 등 관광지가 태반이다.

북구의원 9명은 지난 25일 일본 연수를 떠났으며, 남구의원 9명도 다음달 호주로 연수를 갈 예정이다. 이들 의원의 연수 비용은 공무원까지 다수 동행해 1억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달 초에는 목포시의원 13명이 터키와 그리스를, 영광군의원 12명은 지난 2월 유럽 연수를 다녀왔으나 일정이 관광지 중심이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특히 영광군의원 2명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서로 다투던 중 경찰에 연행되는 추태까지 부렸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견문을 넓히고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하려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다면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연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관광지 유람이 태반이라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이제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는 뿌리깊은 병폐로서, 더 이상 양심과 상식에 맡길 일은 아니라고 본다. 지자체에서 일정을 검토해 관광지는 삭제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편법을 통한 관광성 외유가 밝혀지면 주민들이 소환 등을 통해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다.

정부, 문화전당 개관 끝까지 발목 잡을 건가

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전당 전담조직의 구성은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으며 개관 콘텐츠 구축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일부 시설은 여전히 공사 중이다.

26일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따르면 전당운영 전담기구를 구성토록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인력이 꾸려지지 않고 있다. 행자부에 100여 명을 배정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공무원 신규 증원에 부담을 느껴 미온적이라 한다. 그게 갈 길이 바쁜 국가사업을 처리하는 정부의 바른 처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문화전당이 국가기관임을 재확인하고 국비 지원을 명시한 법률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신규 필요 인력을 바로 배정해야지 일반적인 공무원 증원이나 총 정원과 관련 지어 판단하고 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특히 행자부와 기재부가 개관 준비의 시급성을 외면한 채 부처 간 협의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다.

조직 구성이 늦어지면서 그 폐해가 개관 콘텐츠 구축에까지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 운영 조직이 없으니 콘텐츠 구축을 담당하는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당 내 5개 원 가운데 콘텐츠 구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아시아예술극장뿐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진다.

정부와 여당은 문화전당에 대해 지난 1년여 동안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다. 국비 지원 등을 번번이 반대해 애를 먹이더니 개관을 100일 앞두고도 인력을 배정하지 않은 채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아직도 공사를 한다는데 국립인 문화인프라의 부실한 개관과 콘텐츠 운영은 결국 국가적 손실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문화전당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종교칼럼

어디까지가 인간에 대한 예의일까?

김 영 철
광주 남동 5·18기념성당 주임신부

저는 기암괴석과 숲이 어울려 소금강이라 부르는 영암 월출산 자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사슴 바위라는 뜻의 녹암(鹿岩)마을이라 불립니다. 녹암마을엔 저와 늘 뛰어놀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월출산을 놀이터 삼아 놀곤 했습니다. 바위를 기어오르고 그 사이를 뛰어다니며 산에서 나는 열매를 간식 삼아 먹기도 했습니다. 여름엔 마을 저수지에서 발가벗고 헤엄을 치며 더위를 식히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 운동을 잘하는 아이, 소심한 아이, 쾌활한 아이, 함께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성질 급한 아이, 말을 함부로 하는 아이, 이기적인 아이, 남을 도와주길 좋아하는 아이 등. 모두 달랐으나 우리는 하나같이 자연이 주는 혜택을 온몸으로 느끼고 받으며 자연인으로 늘 함께 우정을 쌓으며 그렇게 친구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최근에 어린 시절 한 마을에 살던 그 친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가끔 시간이 되는 친구끼리 밥을 먹기도 했지만, 함께 월출산에 오르며 정다운 시간을 보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길을 걷고 있고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성격을 지닌 채 살아가지만 친구라는 이름으로 한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서로의 처지와 삶을 긍정하고 이해하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톨릭 사제로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각양각색입니다. 각자의 다름만큼이나 다양하게 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인간다운 정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 쉽게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사탕이나 과자를 건네시는 분, 쌈짓돈을 주머니에 찔러주시는 분, 좋은 책이라며 읽어보라고 책을 선물하시는 분, 밥 한 끼 하자는 분 등 이런 분들의 정을 느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게 격려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하시는 분,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기도해달라는 분 등은 내 존재의 이유를 알아주는 것 같아서 은근 행복합니다. 그분들의 정성이든 부탁이든 마음이 느껴져서 기꺼이 그런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또 조금은 살맛을 떨어뜨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나 말로 나를 당황하게 하는 분, 모든 것을 비관적, 부정적으로 보는 분, 가끔 뒷담화 하는 분, 늘 불평불만인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살맛 떨어지게 하고 기운 빠지게 합니다. 그래도 좋은 말과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기에 그런 마음도 보듬어 안아 받아들입니다.

여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 모임' 일명 '대수천'이라는 모임입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친북반미반정부 정치사제 100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이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히지노 대주교와 옥현진시몬 보좌주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제들은 친북반미반정부 인사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저지른 악행들을 뉘우치고 돌아오라며 입으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속마음에는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가진 어려움과 불만을 가진 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전환시켜 사회를 뒤집어엎겠다는 폭력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제들을 '반역자'나 '마귀집단' 운운합니다. 자신들의 뜻과 생각이 다르다고, 더구나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를 모두 친북반미반정부, 반역, 마귀들로 몰아붙이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서로 뜻이 다른 것은 흔한 일입니다. 가톨릭교회도 하느님에 신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각자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인간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 인간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니, 그 인간의 모습으로 하느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다. 바로 예수그리스도가 그분이시다."

한마디로 인간은 존귀하고 품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항상 상대방에게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다른 이의 삶과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품위와 존귀함을 스스로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무엇이 인간을 살리는 길인지, 무엇이 정의와 평화의 길인지, 하나 되는 길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예의는 어디까지일까요?

기 고

가슴 찡한 효도 받는 길

노 미 덕
광주전남병무청 정책자문위원장

모든 부모들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식에게 효도를 받을 때다. 부모가 자식에게 한 번만이라도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그동안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을 들을때일 것이다. 필자는 돌이켜본다. 지금까지 가장 가슴 뭉클하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구나!'라며 찡한 보람을 느끼던 때가 언제였을까? 31사단에서 5주 훈련받는 동안, 첫 휴가 온 아들의 환한 얼굴을 볼 때가 기억난다.

병무청에서 활동한지 벌써 15년째다. 여성은 출입제한구역으로 여겨졌던 병무청에 병역비리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혁하고 시민사회와 교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그간 변호사, 의사, 교수, 의원 등 많은 각계 지역인사위원들과 교류하면서 투명한 병무청을 위해 전 직원이 가족처럼 뭉쳐서 소통하는 모습에서 신뢰할 수 있었다. 간혹 오래 기간 참여하다보니 지위고하나 빈부를 떠나 대한민국 부모들은 병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느꼈다. 예전 군대생활 시절에는 문제도 아닌 것들이 요즘에는 자식들은 너무 곱게만 키우다보니 어쩔 수 없다며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딱하다는 생각뿐이다. 또한 병역 적령기 남성은 일생일대 한번은 거쳐야 할 병역의무로 고민한다. 어느 시기에 갔다 와야 할 것인가?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좀 더 편한 곳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가? 복학 시기를 학기에 맞추려면?

전국 각지에서 만난 군대 인연은 각별하다. 군대는 종합대학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경험하는 예비 사회인으로 훈련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 품에서 자라고 가르침을 받으면서는 듣고 깨우칠 수 없었던 일들을 군대에서는 터득하게 된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다. 자식에게 알아달라고 원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입영소집장에서 병무청과 군대가 함께 마련한 입영문화제는 감동적이다. 입영자원자들이 부모형제에 대해 따뜻하게 인사하는 광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해진다. 반면 이따금씩 군대 내 구타사망사건들을 접한다. 냉동만두를 먹다 선임병에게 구타당하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윤일병 사건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사지에 넣은 듯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다.

국방부는 국방 핼프콜(1303)을 운영하며 현역장병들이 안전하게 군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과 협업하여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고충상담도 가능하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증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검증하는 것이 병역문제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성역이다. 병역면제를 위한 편법들이 과거에는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병역면제사유 등을 엄격하게 검증한다. 병역자원자가 군대를 가게 되면 가족 생계 곤란 소명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거쳐 면제되는 길도 열어놓았다.

올해는 '3대가 이어온 나라사랑, 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 선정사업이 시작된 지 12주년이다. 전국에 2871개 병역명문가문에게 명예로운 혜택을 주고자 문화예술기관이나 의료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466가문이 선정됐고, 광주는 20가문으로 6월2일 시상한다. 매년 명문가족 3대를 보면서 가족 사랑을 깨우친다. 건강한 정신과 튼튼한 체력으로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자식의 효도를 받고 찡하게 감동할 수 있는 기회, 당당하게 군대를 보내는 강한 부모만이 그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無 等 鼓

오월의 노래

대학 시절 관람했던 '노래패 친구'의 공연 모습을 기억한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노래의 여운은 지금도 남아 있다. 여성 멤버가 너무도 청아한 목소리로 부르던 '그날이 오면'과 '오월의 노래'는 특히 잊을 수 없다. '광주출정가', '의연한 산하', '꽃아 꽃아' 를 작곡하고 부른 정세현이란 이름도 그때부터 기억했다.

기자가 된 후 인터뷰할 때 그는 더 이상 속세의 사람이 아닌, '범능 스님'이었다. 2000년대 중반 화순에서 만난 스님은 노래패 시절을 이야기하는 기자에게 "지금 절집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인연"이라고 했다. 스님은 지난 2013년 입적했고, 그의 노래는 여전히 불리고 있다.

5월 한 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래를 '라이브'로 들었다. 민중가요부터 대중가요, 가곡까지 금남로 14층 사무실 유리창 너머 들려오는 노래를 함께 흥얼거리며 5월을 보냈다. 회사 바로 앞 금남로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음악회를 통해서다. 매일 오후 5시 18분, 광장 시계탑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흘러나온 후 공연이 시작됐다. '상설음악회-오월의 노래'다.

행사를 꾸려가는 이들은 (사)오월음악 박종화씨 등 음악인들이다. 박씨 역시 '지리산' '파랑새' 등을 만든 민중가요 작곡자다. '오월의 노래'의 모태는 1989년 시작된 '오월 거리 음악회'. 옛 가톨릭센터 앞 무대가 주 공연장이었고, 그곳에서 노래하고 박수치며 함께 한 모두가 음악회의 주인공이었다.

11년만에 부활된 음악회에는 청소년 밴드부터 민중가수까지 전국에서 60여 개 넘는 팀이 참여했고 민중가요 뿐 아니라 다양한 노래들이 불려졌다. 박종화씨가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자리를 채워주는 그대들은 관객이 아니라 함께 오월을 만들어가는 동무가 되어버린 이들'이라고 감사를 표한 애정어린 관객들도 많았다.

지난 1일 시작된 대장정은 31일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다. 끝은 또 다른 출발이다. 매년 5월이 시작되고, 오후 5시 18분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흘러나오면 '오월의 노래'는 다시 울려퍼질 것이다. 페이스북(www.facebook.com/maymusicbusking)에서 공연 모습과 남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